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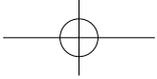
수상 소감

‘사이’와 ‘너머’로_무한히 무화되면서

이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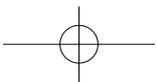
다시 밤이다. 나는 이 글을 종이 위에 연필로 쓰고 있다. 시를 시작할 때처럼. 어디에도 없는 곳을 들여다볼 때처럼. 느릿느릿하게 천천히.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이 리듬은 어느새 급박해지기도 하겠지. 몸의 리듬을 따라가면서 어느 시공간 속에서 문득 휘어지기도 하겠지. 그렇게 한 번 나아갔다가 한 번 돌아오고. 다시 한 번 나아갔다가 다시 한 번 돌아오고. 그렇게 종이 위에 어떤 흔적들을 무수히 남기게 되겠지. 그동안 내가 낭비해왔던 그 모든 종이들. 구겨지고 찢겨지고 버려진 채로 날날이 흩어진 그 모든 종이들. 그것들은 과연 어디에 무엇에 소용이 있었던 걸까. 그것들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종이에게도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더럽혀졌다고 느꼈을까. 끝없는 불확실 속에서. 끝없는 불확신 속에서. 다시 또 처음으로. 다시 또 처음으로. 그렇게 매번 처음으로 되돌아가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싶었을까. 그리하여 옷깃에 붙은 검불을 때어내듯 흰 종이 위에 줄줄이 새겨진 그 검은 글씨들을 떨구고 싶었을까. 지워내고 싶었을까. 닦아내고 싶었을까. 도려내고 싶었을까.

무언가 써내려갈 때면 늘 그렇듯 슬픔이 끼어든다. 슬픔은 무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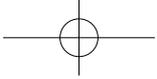
인가. 슬픔은 허공이다. 슬픔은 망각이다. 슬픔은 그림이다. 슬픔은 만월이다. 슬픔은 착란이다. 착란은 언덕이다. 언덕은 들판이다. 들판 다음에는 무엇이 오는가. 들판 다음에는 내가 온다. 언제나 내가 온다. 내가 아니라면 무엇이 오는가. 나무. 구름. 바람. 혹은 얼굴. 얼룩. 얼결. 혹은 죽은 개. 나의 죽은 개. 그러니까 다시 슬픔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슬픔이다. 깨달음도 슬픔보다 먼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슬픔 다음에는 언제나 내가 온다. 나와 슬픔이 동시에 올 수는 없는 거겠지. 언제나 어떤 간격을 두고서야 나와 슬픔은 만나는 거겠지. 대상과 일치할 수 없는 언어 앞에서. 어떤 존재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언어 사이에서. 슬픔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거리 너머에서. 존재만큼이나 희미하고 존재보다도 빨리 사라지는 언어 속에서. 그리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솟아나는 무엇. 그곳에서 힐끗 모습을 드러내는 무엇. 그곳에서 얼핏 꼬리를 감추는 무엇. 그곳에 시가 있다. 그곳에 너와 나의 시가 있다.

하나의 낱말이 하나의 관습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돌연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곳에서 나는 쓴다. 낱말이 교환되듯이 나는 한 발 나아간다. 제자리걸음을 걸듯이 나는 나아가고 물러난다. 그리고. 그렇게. 글쓰기의 한복판에 있을 때면 기억으로부터 소환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 열 살 혹은 열한 살 무렵.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길. 길가의 풀을 손바닥으로 퍼덕퍼덕 훑으면서 걸어가던 그 길. 가도 가도 끝이 없던. 가면 갈수록 더욱더 멀어지던. 길의 끝에 무언가가 놓여 있을 것만 같은. 그러나 결코 그것에 가 닿을 수 없으리라는 이상하고도 슬픈 예감. 그리하여 그 무엇과 마주하게 될 순간의 낙담을 지연시키기도 하듯 일부러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던 그 길. 그 막막함. 그 아득함. 그 하염없음.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야 어느 곁에 생겼는지도 모를 손바닥의 상처를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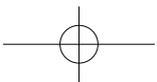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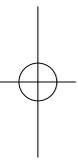
키 작은 풀잎의 여리고 날카로운 잎몸 가장자리로부터 배인 그 상처들을 그제야 아프게 실감하게 되는 것. 상처가 났던 그때. 상처가 난 줄도 모르고 걸던 그때. 그때 나는 무엇이었을까. 그때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있으면서도 없는 몸으로. 없으면서도 있는 마음으로. 어떤 사이에서. 어떤 너머에서.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때 나는. 나무와 함께 있었겠지. 구름과 함께 있었겠지. 바람과 함께 있었겠지. 그렇게 나는 무수한 너와 너와 너와 함께 있었겠지. 그렇게 무수히 분열된 너와 너와 너와 함께 있음으로써 그렇게 무수히 분할된 나와 나와 나와 함께 있었겠지. 그렇게. 그리하여. 뒤늦은 몸과 뒤늦은 마음으로 뒤늦은 시간 속에서 뒤늦은 기억을 배열하면서. 그러니까 슬픔이다. 무언가 놓여 있던 자리. 무언가 놓여 있는 채로 흘러가는 자리. 흘러가는 채로 사라지는 자리. 간신히 말해볼 수 있는 어떤 한 자리. 바로 그곳에 시가 있다.

어제 나는 당신의 이름을 적었다. 백지 위에. 백지 위에 백 번을 적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이름을 모르도록. 백지가 다시 백지가 되도록. 반복해서 반복해서. 오늘 나는 당신의 이름을 적었다. 백지 위에. 다시 백지 위에 당신의 이름을 백 번 적었다. 오직 나만의 이름이 되도록.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이름을 모른다. 어제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이 아니기에. 오늘의 당신이 내일의 당신이 아니기에. 당신은 언제까지나 유보된 문장으로 존재한다. 당신은 늘 새롭게 쓰여야 한다. 나는 내가 썼던 당신의 이름을 다시 말하기 위해, 고쳐 말하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다시 쓴다. 반복해서 반복해서. 어제 죽은 당신을 살려내는 하나의 주술처럼. 의성어가 의태어가 될 때까지. 의태어가 의성어가 될 때까지. 명사가 동사가 될 때까지. 동사가 명사가 될 때까지. 형용사가 부사가 될 때까지. 부사가 형용사가 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리를 바꾸고, 자신의 자리를 뒤섞고, 자신의 향방을, 자신의 행방을 모르게 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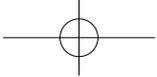
까지. 그리하여 다시 그 자신이 될 때까지. 온전히 그 자신이 될 때까지.

언어가 끌고 가는 미지의 길을 들여다본다. 보이지 않는 깊이와 높이를 본다. 종이 위에 눌러둔 그 모든 문장이 가리키는 것은 다 무엇일까. 공허를 향해. 허공을 향해. 점점이 뭉개지듯이 사라지면서 나아가는 목소리들. 모든 문장은 모두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 똑같은 낱말이 모두 다 다른 뜻을 지니듯이. 그것. 그것들. 언제나 그것들. 나의 낱말들은 쓰려는 그것들로부터 언제나 너무 멀리 있다. 아니. 언제나 너무 가까이 있다. 너무 가까워 들리지 않는 귓속말처럼. 그러나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또다시 멀어진다. 말하려는 순간. 말해지는 순간. 그것은 또다시 멀어진다. 사라진다.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흘러간다. 흩어진다. 미끄러진다. 나는 그것들이 사라진 길을 바라본다. 이제는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희미한 그 무엇. 무한히 무화되고 있는 그 무엇. 나는 그것들을 백지 위에 옮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쓴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쓰면서 그것들의 흔적을 질질 끌고 간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쓰면서 그것들의 얼룩을 새긴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들을 옮기고 있는 이 언어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홀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무엇이 아니어서. 익히 학습해온 관습적이고도 보편적인 문법에서 벗어나 언어가 제 스스로 굴러가 자신의 자리를 잡고 설 때. 어떤 문맥적 배치 속에서 임의적이고도 임시적인 의미를 덧입고 하나의 세계를 펼쳐나갈 때. 그곳에서 시는 다시 태어난다. 그곳에서 삶은 다시 시작된다. 그리하여 내게 있어 시적인 상태란 경험해온 감각의 표면 혹은 심층으로부터 솟아나는 구체적인 풍경 혹은 대상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 언어의 운동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그저 하나의 문장이 도착했고. 그 문장과 함께 어떤 목소리와 목소리가 도착했



고, 그것들과 함께 미지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내가 처한 어떤 언어적 상황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러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다시 바라보려고 하는 것. 과연 실재라고 부를 만한 어떤 보편적인 상像이라는 것이 있느냐는 문제는 둘째로 치고, 언어는 어떤 식으로든 한 세계를 조작하고 왜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세계를 종이 위에 눌러 고정시키기 전까지는, 그리고 고정시킨 후에도, 그 목소리와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허나, 사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는 했지만, 온전히 사물의 편에서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온전히 목소리의 곁에 젖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무지의 영역 한편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자의 쓸쓸함과 막막함과 유약함을 아프고 부끄럽게 절감하면서.

언젠가 어느 자리에서 문학을 위해 희생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나는, 글을 쓰면서 무언가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많은 것을 희생해왔다는 것을 안다. 더해서 문학이 나를 크게 죽였다는 것도, 그것으로 인해 더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렸다는 것도, 그러나 그러하기에 나는 지금 살아 있다는 것 또한 안다. 그렇게 문학이 나를 내내 살리고 있다는 것 또한 안다. 다시 밤이다. 죽음은 멀지 않다. 이별은 필연적이다. 죽음만이 삶이다. 두려움 없이, 죽음으로 가는 삶만이 시詩를 불러들인다. 그리하여 오늘 나는 다시 쓴다. 다시 쓰고 다시 산다. 죽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순간 위에 간신히 간신히 날말과 날말을 엮어 놓는 것. 그 허술한 날말들을 징검다리 삼아, 사물과 사물 사이로, 세계와 세계 너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백지를 마주할 때마다 두렵고 두렵지만 그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건너갈 때 나는 조금이나마 단단하고 굳건할 것이다.



과분한 상 앞에서 정작 해야 될 말 대신 쓸모없는 말들만 늘어놓은 것 같다.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드린다. 나는 그들에게 한없는 빛을 지고 있다. 갇아야 할 빛이라기보다는 되돌려줘야 할 빛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겠다. 문학실험실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료 작가들, 그리고 각자 함께, 함께 각자, 부단히 나아가고 있는 루들. 그들은 나의 친구이자 선생님이다. 막다른 길 끝에서 막다른 벽을 마주 보고 서 있는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그들의 책상을 떠올리곤 한다. 다시 밤이다. 어느덧 중년을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 그리하여. 이제는 잊을 수 없는 것조차 잊어버려야 할 나이가 되었다. 잊지 못하는 것마저 잊어버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리하여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지치지 않고 써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더 더 써나갈 수 있기를. 너와 내가. 그렇게 우리가.